

“제주 잡아야 파이널A 보인다”



지난 17일 열린 ACLE 리그 스테이지 1차전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며 팀의 대승을 이끈 광주FC 외국인 3인방. 왼쪽부터 아사니, 가브리엘, 베카. <광주FC 제공>

광주FC, 오는 22일 안방서 사활건 단두대 매치



광주FC

광주FC가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파이널A 진출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 광주는 오는 22일 오후 4시30분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제주를 상대로 하 나은행 K리그 2024 3라운드 홈경기를 펼친다. 경기는 양 팀 모두에게 단두대 매치와 다름없는 경기다. 현재 광주는 7위(승점 40), 제주는 8위(승점 35)에 위치하며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 광주는 남은 세 경기에서 연승을 거둬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시즌부터 맞대결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를 상대로 반드시 승점 3 점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외국인 공격 삼각 편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7일 요코하마를 상대로 치른 ACLE 데뷔전에서 무려 7골을 폭발시킨 광주는 3골 1도움을 기록한 아사니를 비롯해 가브리엘, 베카가 모두 골맛을 보며 최고의 컨디션임을 증명했다. 아사니·가브리엘·베카가 리그 경기에서도 활약을 이어가는 것이 승리를 위한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로테이션 멤버들의 미친 활약도 기대해볼 만하다. 울산을 상대로 치른 코리아컵 4강을 기점으로 김경재, 조성권, 이강현, 오후성 등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며 팀의 경쟁력을 올렸다. 지난 포항전에서 맹활약한 최경록과 ACLE에서 오랜만에 골맛을 본 이희균 등이 더욱 절실한 자세로 경기에

아사니·가브리엘·베카 '삼각 편대' 출격 준비 끝 아시아 정상 꿈, 요코하마 대승 자신감 무장 ACLE 병행 지옥의 레이스...관전은 수비 집중력

임하고 있고, 복귀하자마자 한 차원 높은 플레이를 보이며 국가대표 미드필더다운 면모를 보인 에이스 정호연도 출전 대비를 마쳤다. 주중-주말 경기를 잇달아 치르는 빠 른 일정 속에서 광주는 90분 내내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측면 수비수 이민기와 김진호가 개인기가 뛰어난 상대 공격수 상대 회와 헤이스를 저지하는 것이 승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강현과 베카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강력한 압박으로 볼 소유 권을 지켜내는 게 주요 임무다. 7, 8위에 위치하며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팀에게 이번 맞대결 은 올 시즌 운명을 가를 중요한 일전이다. 이정호 광주FC 감독은 “제주전 승리를 통해 상위 라운드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규라운드 막바지에 이른 현재 모든 경기가 결승전처럼 펼쳐지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후 경기가 승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요코하마를 대파하며 ACLE 정상 꿈의 키운 광주가 연승의 기세를 이 어서 제주를 꺾고 파이널A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희중기자

“씨름하면 ‘이만기’ 아닌 ‘김민재’ 목표”

2002년생 모래판 ‘괴물’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

지난해 백두급 6회 정상...올해만 벌써 5차례 백두장사 역대 최다 19연승·4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 현재 진행형

모래판에도 김민재가 있다. 그는 씨름 ‘괴물’로 불린다. 2002년생, 22세에 불과한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는 백두급(140kg 이하)을 평정하고 있다. 김민재는 지난 18일 열린 위더스제 약 2024 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급 장사결정전에서 서남군(수원특례시청)을 3-0으로 꺾고 우승했다. 민속씨름에 데뷔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무려 13번째(천하장사 1회, 백두장사 12회) 장사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민재의 등장으로 ‘씨름의 꽃’ 백두급업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2022년 6월, 울산대 2학년에 재학 중인 키 190cm, 몸무게 140kg의 김민재는 주먹이 들배지기를 앞세워 민속씨름리그 데뷔전이었던 단오장사대회에서 곧바로 백두장사에 올랐다. 김민재는 그해 11월 참가한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는 천하장사까지 거머쥐며 씨름판을 깜짝 놀라게 했다. 1985년 이만기(당시 경남대 4학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 나온 대학생 천하장사로 이름을 올렸다. 2022년에는 백두장사 1회, 천하장사 1회로 괴물의 출현을 알렸다면, 지난해 부터는 영암군민속씨름단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괴물의 면모를 뽐내기 시작했다. 김민재는 지난해 민속씨름 9개 대회에 참가해 6개 대회(설날대회, 문경장사대회, 보은대회, 단오대회, 제천의병장사대회, 안산김홍도대회)에서 우승했다.시즌 전체 1위는 단연 김민재(26승 2패·48점)의 차지였다. 올해 김민재는 더욱 압도적인 괴물이 됐다. 10월 안산김홍도대회와 11월 천하장사 씨름대축제가 남은 상황에서 이미 5차례 꽃가마에 올랐다. 심지어 지난 6월 단오장사대회부터 이번 추석장사 대회까지 역대 최다인 19연승을 내달리고 있고, 4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장사 트로피도 13개로 늘었다. 승점에 따른 시즌 랭킹 도입 이후 백두급 시즌 랭킹 1위는 매년 바뀌는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는데, 김민재가 처음으로 2년 연속 백두급을 제패했다. 김민재는 역대급 속도로 장사 타이틀을 수집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위더스제 2024 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 이하)에 등극한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황소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대한씨름협회 아카이브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수와 장사 횟수를 모두 따져볼 수 있는 2017년 이후 김민재보다 장사 타이틀이 많은 이는 금강급(90kg 이하)의 절대강자 노범수(2회·울주군청해뜨미씨름단)와 최정만(14회·영암군민속씨름단)이다. 노범수와 최정만은 이번 추석대회까지 190경기 이상을 소화했다. 김민재는 단 76경기 만에 13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추석장사에 오른 김민재는 “씨름 하면 이만기보다 김민재가 생 각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대한씨름협회의 역대 장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래판의 ‘레전드’ 이만기는 천하장사 10회, 백두장사 18회, 한라 장사 7회 등 역대 최다인 35차례 꽃가마에 올랐다. 이만기가 활약한 1980년대에는 현재 보다 한 해 열리는 대회 수가 적었다. 현재 씨름 종목에서 한 시즌엔 민속 대회 4개(설날, 단오, 추석, 천하장사)와 민속리그 6개 등 총 10개 메이저 대회가 열린다. 불과 2년 만에 13차례 장사 타이틀을 수집한 22세 김민재가 지금과 같은 파괴력을 유지한다면 이만기의 기록을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KIA, 삼성, kt 등 6개 구단 관중 신기록 프로야구 입장수입 1천500억 돌파

프로 스포츠 최초로 시즌 누적 관중 1천만 명 시대를 개척한 2024 프로야구가 입장 수입에 서도 새 이정표를 세웠다. 이미 6개 구단이 시즌 총관중 신기록을 수립하고, 또 6개 구단이 관중 100만명을 넘긴 상황에 서 입장수입도 크게 늘었다. 정규리그 전체 경기(720경기)의 95%를 치른 지난 18일 현재 10개 구단 입장 수입은 1천505억6천433만5천895원을 찍어 1982년 프로 출범 후 최초로 1천500억 원을 돌파했다. KBO리그는 2023년에 처음으로 입장 수입 1천억원을 넘겨 1천233억3천309만7천171원을 벌였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관중이 34%나 증가한 덕에 올해 입장 수입은 시즌 중착역에 달기 전에 1천500억원 고지를 처음으로 밟았다. 2024년 입장 수입은 1982년 약 21억원의 71.4배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경기 수와 비교할 때 관중은 34%, 입장 수입은 30% 각각 증가했다. 평일과 주말 입장권 가격을 차별화하는 등 각 구단의 객단가 정책에 따라 관중과 입장 수입 증가치는 약간 다르다. 올해 10개 구단 중 최다인 44번이나 매진을 이룬 한화의 입장 수입은 작년보다 47% 급증했다. 정규리그 우승팀 KIA의 관중은 지난해보다 68%, 입장 수입은 44% 급증했다. KIA를 필두로 삼성, kt, SSG, 한화, 키움 등 6개 구단이 시즌 누적관중 신기록을 작성했다. KIA와 삼성은 각각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2014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2016년) 개장이래 최다인원을 끌어모았다. SSG는 역대 인천 연고 프로야구팀으로는 최초로 2년 연속 관중 100만명을 기록했으며, 역대 최다 홈 관중 기록도 12년 만에 새로 썼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컵대회, 오는 21일 통영서 개막

중간 랠리 판독·그린카드 첫 적용

프로배구 V리그 전초전인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에 새 규칙이 도입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9일 “올해 컵대회에서는 세트당 1회였던 비디오 판독을 2회로 늘리고 중간 랠리 판독, 그린카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간 랠리 판독은 랠리 중 심판이 판정하지 않은 반칙에 관해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판독 결과와 관계없이 비디오 판독 횟수는 유지되지만, 생각한 반칙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신청 팀이 1점 실점한다. 그린카드는 불필요한 판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주심의 판정 혹은 비디오 판독 전에 선수가 먼저 반칙을 인정하고 손을 들면 해당 선수에게 그린카드를 제시한다. 그린카드 누적 점수는 정규리그 페어플레이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KOVO는 컵대회에서 새 규칙을 시범 적용한 뒤 V리그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컵대회는 경남 통영시 통영체육관에서 21일부터 28일까지 남자부,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여자부 경기가 펼쳐진다. 남자부는 프로 7개 팀과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합쳐 총 8개 팀이 경쟁한다. 여자부는 초청팀 프레스티지 인터내셔널 아란마레(일본)를 포함한 8개 팀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올림픽 銀 김예지, 진짜 킬러 된다

영화 '아시아' 스펀오프 숏폼 캐스팅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시크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주목받은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임실군청·사진)가 킬러로 출연한다. 아시아랩 엔터테인먼트는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사격 김예지가 영화 ‘아시아’의 스펀오프 숏폼 시리즈 ‘크리쉬’에 킬러로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는 이정섭 감독의 영화로,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배우가 출연하는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작품이다. 김예지는 소셜미디어(SNS)에서 4천만 이상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인도 배우 아누슈카 센 등과 함께 킬러로 동반 캐스팅됐다. 아시아랩 대표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에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는 소셜미디어(SNS)에서 4 /연합뉴스

